

농협의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역할

송한철

농협중앙회 환경농업팀장

1. 주요 추진내용

구분	주요내용
생산지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생산 작목반 육성 ○ 친환경농업 공동연구사업 추진(농촌진흥청) ○ 팔당 상수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살리기 운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검정기(A-PEN) 및 시비처방서 공급 - 환경보전형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 푸른들 가꾸기 운동 추진 등
유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성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개최(2001년 11월 중) - 도시소비자 초청 생산현장 견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판매장 : 6개소 - 판매코너 : 97개소 ○ 친환경농산물 전자상거래 추진 ○ 친환경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추진 등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전문기술 교육 ○ 친환경농업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소비자단체 환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강좌」 개설 운영

2.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가. 친환경농산물생산작목반 육성

- 1) 조직 육성 : (2000) 2,054개 → (2001) 2,154개
- 2) 농산물 품질관리(인증) 지도 강화
 - 작목반원중 일정비율이상 반드시 품질인증을 취득하도록 지도

나. 친환경농업 시범연구사업 실시

- 1) 친환경농업자재(키토산) 시범사업 실시
 - 목 적 : 친환경농업자재 현장실증 시험을 통한 저변 확대
 - 시범포 수 : 총 857개소(지역조합당 3개소, 품목조합당 1개소)
- 2) 농촌진흥청과의 친환경농업 공동연구사업 실시
 - 목 적 : 친환경농업의 각종 기술·자재 검증, 우수사례발굴 보급, 실천기술의 조기 정착
 - 시범포 수 : 13개소

다. 친환경축산 담근먹이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참여조합 확대 : (2000년) 11개소 → (2001년) 20개소
- 담근먹이 수확, 제조 및 파종작업 연사회 개최 : 연 2회(5월, 10월)

라. 토양검정사업

- 1) 사업목적
 - 토양검정의 대중화로 과학적 토양관리 유도
 - 주요개선내용

현 행	21-17-17	18-0-18	18-18-18	10-22-14	21-17-17
개 선	22-12-12	18-0-15	15-15-15	10-16-10	11-6-6
감비율	16.4%	8.3%	16.7%	21.7%	58.2

- 흙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최초 개발된 저농도 비료의 공급비율은 '97년 2.5%(4.1톤) → '00년 21%(354천톤)으로 증가함.
- 흙살리기운동의 내실화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

2) 추진내용

- 농협은 96년부터 토양검정에 의한 흙살리기운동 실시
- 간이 토양검정기(A-PEN) 공급
 - 공급기종 : 농협형 토양검정기(A-PEN)
 - 공급수량 : 12,440대
 - 분석항목(6개항목) : 산도(pH), 석회질요구량(석회고도, 소석회), 규산함량, 전기전도도(EC), 염류농도, 질산태질소
- 간이 토양진단센터 운용(197개소)
 - 인원 및 시설 : 개소당 시비진단사 1명이상, 분석실 8~10평
 - 장비 : 토양분석시비처방기(A-SF10), 시약셋트, A-PEN, 노트북 및 프린터, 냉장고, 건조기, 초음파 세척기 외 실험기자재 등
 - 분석항목(10개항목) :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석회, 고도, 칼리, 양이온치환용량(CEC), 유효규산, 질산태질소
 - '98~'00 교육 실시 : 19천명

마. 친환경비료 공급 현황

1) 사업목적

- 친환경비료 개발 공급으로 토양의 양분 불균형 해소 및 적정시비 유도

2) 추진내용

- 인산, 칼리 축적 방지를 위한 주요 비료 개선

바. 환경친화형 축산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

1)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보급사업

- 2001년 사업계획 농림부 승인
- 기본설계 농림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통과

2) 가축분뇨처리 시책순회 및 기술 상담원교육

○ 가축분뇨처리 시책 및 기술순회 교육

- 교육대상대상 :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시군 축산·환경공무원 등
- 교육방법 : 축산분뇨처리시책, 축분퇴비화·액비화, 표준설계도 활용
- 교육인원 : 도별 집합교육, 1,148명

○ 가축분뇨처리 기술상담원 기술교육

- 교육대상 : 지역본부 및 조합 축산환경 기술상담원 78명
- 교육목표 : 상담원의 기술력 배양 및 새로운 정보 전달 등

사. 돈분뇨 무방류 자원화 연구용역 추진

- 1) 연구 기관 : (사)한국 축산환경협회, 상지대학교
- 2) 연구 추진 장소 : 양돈농가(충북 진천, 충남 병천)

3.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지원

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상 특성

- 소량 다품종 생산·유통 및 소포장으로 유통비용 과다 소요
- 일반농산물에 비해 외견상 상품성 저하
- 생협중심의 직거래 위주 판매

나.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만 내용

1) 가격이 비싸다

- 환경농산물 생산·포장·유통과정 상에서의 가격상승 요인 제거
 - 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 육성, 환경농업자재 개발 보급
 - 소포장을 하지 않는 대량직거래처 개발(학교, 병원 등)
 - 회원 주문판매를 중심으로 한 소포장, 유통상 가격상승 요인 제거

2) 못 믿겠다

- 사유 : 언론에서 환경농산물 농약검출 발표
- 대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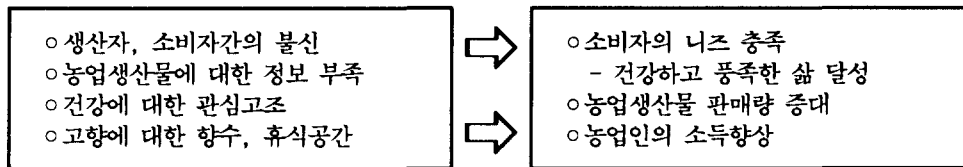
- 92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전 농검)에서 품질인증사업 실시
- 정부에서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해주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임
- 환경농산물 잔류농약 최소기준 제정
- 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에 대한 정신교육 실시

3) 구입이 불편하다

- 과거 : 백화점 중심판매, 회원중심 주문판매
- 현재 :
 - 농협에서 전문판매장(6개소) 및 판매코너 설치(97개소)
 - 농협 하나로클럽 등 대형매장에 판매코너 설치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1) 추진 방향



2) 주요 추진계획

- 물류센터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추진
 - 대상 : 농협운영 물류센터(양재, 창동, 청주, 전주, 성남, 고양, 군위 등)
 - 물류센터내 도매부문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일반 유통업체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안정물량 확보를 위해 산지농협, 작목반과 계약생산, 출하체계 구축

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매취자금 지원 확대

- 지원 규모 : (2000) 58억원 → (2001) 64억원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4) 친환경농산물 도매 및 대량수요처 발굴

- 대기업, 관공서,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발굴
 - 주 1회이상 친환경농산물 식단 지원

- 외식산업과의 연계지원
 -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발굴 납품

5) 소비자단체들의 구매조직화 유도

〈주요 내용〉

- 각 소비자단체 회원들을 친환경농산물 구매회원으로 유도
- 친환경농산물 구매회원에 대하여는 단체별, 개인별, 회원번호 부여
- 구매회원들이 특정매장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환경농산물을 구입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해당 소비자 단체에게 지급

〈추진 방법〉

- 유형별로 나누어 추진
 - 제1유형: 친환경농산물의 단체구입 추진 - 신뢰 구축 단계
 - 제2유형: 소비자 단체, 농협회원 주문 판매(서울지역)
 - 제3유형: 생협·민우회등을 포함하는 유통체계 구축
 - 제4유형: 친환경농산물 사이버 마켓 구축
- 친환경농산물의 구입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소그룹화
(예: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6) 친환경농산물 수출 추진

- 일본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응한 수출방안 모색
-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산물 수출 적극 추진

7) 친환경농산물 먹기 운동 지속 전개

- 특정요일(예: 금요일)을 지정하여 실시
 - : 자매결연을 맺은 대기업을 중심 → 점차 공공기관으로 확대
 - ☞ 중앙본부에서는 매주 금요일 “유기농산물 먹기 운동” 전개

라. 친환경농산물 단체급식 추진

- 우선 학교급식을 환경농산물로 바꾸어 어린이들에게 만이라도 환경호르몬이 적게 포함된 음식물을 최우선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봄. 그리고 공공기관·단체의 구내식당의 급식(예: 주 1회이상)과 대형병원에서의 급식도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현실에서 일반화 되고있는 단체급식의 재료가 되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경쟁입찰에 의한 공급업자와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음. 품질보다는 가격에 우선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고 유통되는가는 문제되지 않고 최소한의 중금속과 잔류농약기준만 지켜진다면 가격이 싼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임.
-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농산물 등으로 대별되는 환경농산물은 소량생산과 소량유통의 특성상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사실임. 특히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환경농산물은 소비자의 불신에 따른 현지 소포장 등으로 유통비용의 과다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단체급식이라는 대량유통의 특성과 농협등 비영리 단체들의 물류조직을 잘 활용하면 유통비용을 대폭 절감한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약간 비싼 가격으로도 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함.
-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환경농산물로 바꾸려면 학교 등 대량소비단체들의 인식전환과 동의가 필요함. 환경농산물은 공산품이나 일반농산물과 같이 사고싶다고 언제든지 구입 가능한 것이 아님.
- 우선은 생산된 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농협 등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과 소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소비자가 농업인을 격려하고 구매하여 줌으로써 생산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임.

4. 친환경농업 교육홍보

가.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실시

1) 시군지부단위 교육

- 교육대상 인원 : 작목반원 3,600명(36개소×100명)
- 교육 내용 : 친환경농업 필요성 및 생산기술 전반
- 장소 및 기간 : 시군지부회의실, 2박3일

2) 교육원 교육

- 환경농업교육원(1일 및 1박2일) : 105회, 8,270명
- 안성교육원(2박3일) : 5기, 1,050명

3) 친환경농업지구 참여농업인 교육 : 5회, 700명

나. 친환경농업 소비자교육 실시

- 1) 목적 : 도시소비자에 대한 의식교육·농장견학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필요성 인식 확산
- 2) 대상 : 소비자단체 회원, 교사, 학생 등
- 3) 방법 : 매주 금요일 40명 내외로 강의 및 현장견학 병행

다. 농촌환경보호운동 전개

- 1) 실시 시기 및 단위 : 연중(매월 1회이상), 계통사무소 단위
- 2) 『농촌환경보호의 날』 지정 운영 : 매월 4째주 토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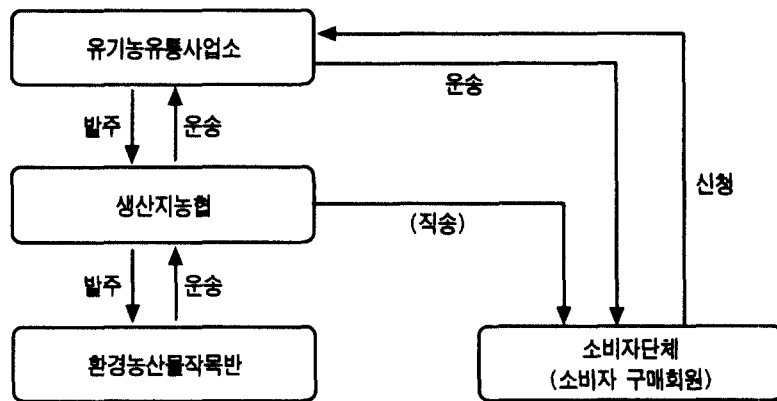
5. 팔당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발전방향

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충

1) 친환경농산물의 단체구입 유통체계 확립

- 이는 농협과 소비자단체의 연계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한 예로 팔당지역의 친환경농업작목반과 소비자단체를 연계하되, 중간에 산지농협과 농협의 유기농산물 유통사업소 같은 유통전담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 유통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친환경농산물의 단체구입 유통체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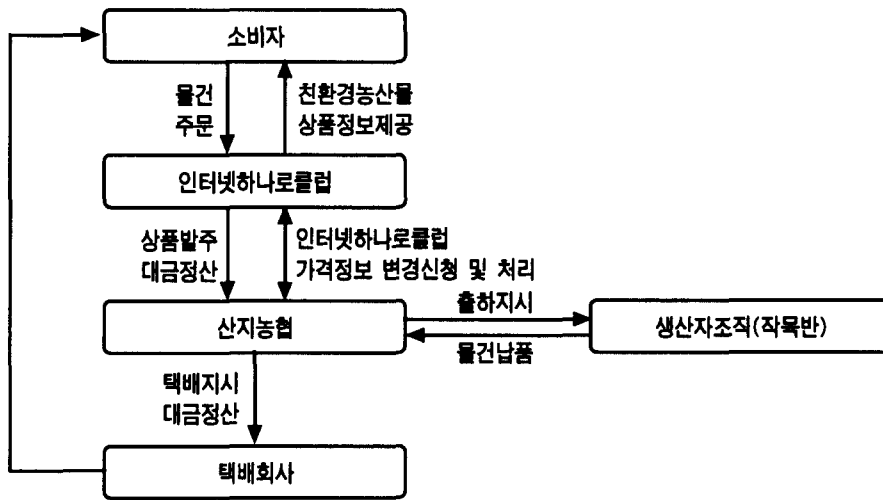


2) 친환경농산물의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대체로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싸다는 것임. 강창용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가격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주부의 57.1%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일반농산물과 같은 수준이라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다고 응답
 -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8.9%, 일반농산물의 1.5배 수준이라도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29.8%로 나타남. 이는 안전성, 우수성에 따른 차별화에도 기인하겠지만, 소포장과 소량으로 출하·운송되는데 따른 유통 비용에도 많은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적정 수준 낮추는 것이 필요
 - 김호(2000)는 이의 방안으로 시·도별로 친환경농산물의 공동 물류 기구를 설치하여 여기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집과 분산을 중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함.
 - 현재는 조직별로 각각 소규모 물류기구를 설치하여 자체 조직의 물류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조직간 연합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

〈인터넷을 통한 주문판매 체계(예)〉



3) 인터넷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주문판매 사업 추진

- 이 사업은 현재 농협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하고 있으며, 점차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 검토할 만한 것임. 이는 농협의 인터넷 하나로클럽에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를 개설하여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친환경농산물의 출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산지농협과 친환경농업작목반과의 체계적인 출하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나. 효율적인 자원순환환경농업시스템 구축

- 농협이 현재 팔당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사업은 환경보전은 물론 경종·축산농가의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 추진할 만한 사업으로 평가됨. 이 사업은 경종농가는 톱밥, 우드칩, 팽년왕겨 등 축사갈개를 톱밥발효 축사를 설치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분뇨 발효퇴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톱밥, 우드칩, 팽년왕겨 등을 축사에 깔아 축산 오폐수를 처리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이를 부숙시켜 퇴비로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경감되고, 동시에 토양상태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사업에 대한 참여의향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3.1%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이 사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그러나 이같은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아직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됨. 톱밥 또는 우드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간벌목을 원료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산림법상 농업인이 간벌목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안되고 있음.
 - 또한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간벌목의 수량 및 위치 파악이 어려움. 톱밥발효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톱밥구입비에 대한 부담과 톱밥조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음.
 - 또한 경종농가의 23.7%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역시 톱밥구입비 부담을 많이 지적함. 따라서 농협의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협조사항〉

- 간벌작업으로 생산되는 원목들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임도변(차량 등의 운반이 가능한 곳)에 적재
 - 산림훼손 허가 또는 벌채허가 과정에서 허가지역 내 벌채목을 사업시행주체로 하여금 차량출입이 가능한 곳까지 집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 강구
- 적재된 원목의 위치 및 수량을 농협에서 요청시 정기적으로 통지
- 임도변에 적재된 원목들을 무상으로 농협 및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국유림, 도·시·군유림 등의 경우)
- 산림청에서 자체 생산하는 톱밥 및 우드칩을 농협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시장가격보다 10% 낮게 공급하고 있으나, 실제 운반비용을 감안하면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임
- 목재 파쇄기 등의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

다.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강화

- 양평 농업기술센터내에 환경농업기술교육장 설치
- 환경농업단체와 연계한 환경농업 전문기술교육실시
- 참여농가에 대한 환경농업 의식교육 강화
- 환경농업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품질인증 획득절차등 요령 교육실시
- 환경농업 유통상 특성 등 유통관련 교육강화